



WOOSONG NETWORK

세상을 향한 꿈을 펼치다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우송튜터링! 홍콩&마카오 탐방기

떡의 반란이 시작된다!

나도 한다, 창업!

튼튼한 취업 서포터즈! 취업지원센터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한 김유겸 졸업생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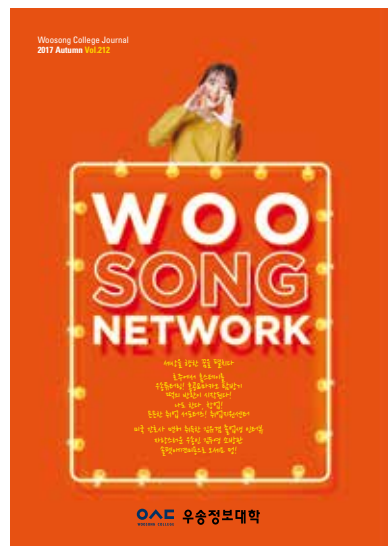
자랑스러운 우수인 김두영 소방관

솔프켓이거견미용으로 오세요 명!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7 Autumn Vol. 212



발행처 우송정보대학 학보사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발행인 경 상 직
주 간 김 주 형
발행일 2017년 10월

우송정보대학 "WOOSONG NETWORK"에 게재할 원고를 수시 모집합니다.

- 대 상 : 재학생, 동문, 교직원
- 모집분야 : 학과 행사/동아리 활동/취업, 진학, 시험합격 등 체험수기/연수 및 여행기
- 접 수 : hakbosa@wsi.ac.kr (042-629-6843)

CONTENS

WOOSONG NEWS | 우송뉴스

- 04 해외 전공연수 및 외국어 학습법 발표회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취업박람회 개최



- 2017학년도 유학생 졸업식
05 간호과 '2019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간호과,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온새미로의 응원
06 조리부사관과, 제 6회 조리부사관 발대식
언어재활과, 제4회 언어재활사 선서식



- 07 글로벌실용음악과, 명장경진대회 및 Sol Bridge Summer Camp
조리부사관과, 명장경진대회
유아교육과, 보육실습 보고회
08 호텔관광과, 롯데호텔제주 서비스직무교육 실시
글로벌호텔외식과, 해외 인턴십 현황
09 글로벌호텔외식과, 영어발표경진대회 개최



INBP, 프랑스 INBP 본교 연수

WOOSONG FOCUS | 우송포커스

- 10 세상을 향한 꿈을 펼치다
12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 14 우송튜터링 장학생
16 떡의 반란이 시작된다!
18 나도 한다, 창업!
20 든든한 취업 서포터즈! 취업지원센터
22 우리는 일본으로 갑니다!

WOOSONG LIFE | 우송라이프

- 24 우송체육대회



- 26 날이 좋아서, 모두 함께!
28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30 오늘 '이 노래' 어때요
31 우송시네마
32 우송북클럽

WOOSONG PEOPLE | 우송인

- 34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한 김유경 졸업생 인터뷰



- 36 안전을 책임지는 김두영 소방관
38 솔팻애견미용으로 오세요 멍!



- 40 우송장학생과 떠나보자 중국으로!

WOOSONG PRESS KIT | 우송보도자료

- 42 - 우송정보대학, 2017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
- 우송정보대학,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분야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 우송정보대학, "K-Move스쿨" 약정 체결식
- 우송정보대학,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43 -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우송정보대학, ㈜탐텍으로부터 기탁장학금 수여식 진행
-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트로피가 온다>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초청 무대
-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학부 2017 대한민국 국제 요리 & 제과 경연대회 수상

WOOSONG NEWS



1 해외 전공연수 및 외국어 학습법 발표회

지난 9월 20일, 어학교육센터가 주관한 '해외 전공연수 및 외국어학습법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경 이사장, 정상직 총장을 비롯하여 원어민 교수와 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발표회에는 싱가포르, 호주로 해외전공연수 및 현장실습을 참여한 총 19명의 학생들이 전공분야에서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배운 경험들을 발표하였다. 영어발표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동주 외 6명(글로벌호텔외식과)의 학생들은 ICHM에서 전공 관련 교육과 현지 호텔의 탐방에 대한 발표와 민윤선 외 3명(뷰티디자인학부), 김기석 외 1명(기계자동차설비학부)의 학생들은 싱가포르에서 ITE 대학 내 전공 관련 교육과 탐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하계 토익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마친 문지수(글로벌제과제빵과) 외 5명은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문화경험과 전공별 산업체를 견학, 집중적인 언어연수를 통하여 월등히 향상된 영어 실력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전공별 산업체의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학생마다 영어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주었다. 김성경 이사장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긍정의 말을 전했다. 정상직 총장은 "이번 해외전공연수가 여러분들의 경험에 분명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경험한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할 여러분들이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2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취업박람회 개최

지난 6월 2일 우송정보대학 사회맞춤형교육(LINC+)사업단이 주관한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취업박람회'가 서캠퍼스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취업박람회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육군본부, 대전시청년인력관리센터 굿잡버스,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스태프(주) 등 40여개 기업이 취업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재학생들의 높은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박람회 현장에서 재학생들의 취업상담이 이루어지고, 채용 설명을 듣는 등 취업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기업의 취업부스 외에도 직업적성검사, 기업신속대응센터, 카페테리아,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 2017학년도 유학생 졸업식

지난 6월 13일 2017학년도 유학생 졸업식이 거행되어 호텔관광학부 등 민민 학생을 비롯한 30명의 유학생이 졸업하였다. 중국 각지에서 온 유학생들은 2년간 우송정보대학 교육을 통해 명장으로 성장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가진 것이 없어도 이웃에게 베푸는 일곱가지 보시, '무재칠시'의 마음을 지녀라."는 말과 더불어 "먼 타지에서와 우리대학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대견하고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축하인사를 건넸다.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졸업생 25명은 우송대학교 편입학을 계획하고 있다.



4 간호과 '2019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지정

우송정보대학의 대표학과인 간호과가 3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된다. 간호과는 지난 9월 8일(금) 교육부로부터 2019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에 지정되는 경사가 있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는 4년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할 때 전문학사가 아닌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간호과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 2학년 재학생 및 2018학년도 신입생들도 3+1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5 간호과,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지난 5월 24일, 우송도서관 소강당에서 '제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학생에서 간호사로 가는 첫 의식행사로써 임상실습을 가기 전 학생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다리는 전환점이 되는 행사이다. 나이팅게일 선배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주변을 밝히겠다'는 촛불의식을 시작으로 나이팅게일 선서가 이어졌다. 2학년 남학생 31명, 여학생 58명 총 89명은 촛불을 밝히고 '일생을 의롭게 살며 환자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다하겠다'고 서약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전문직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아픔도 치유해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선서생 유지현 학생은 '곧 실습을 앞두고 진지한 마음으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6 온새미로의 응원

온새미로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6월,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게릴라 이벤트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총학생회 임원들은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총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통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시험 기간 동안 힘 내라는 의미에서 초콜렛과 이온 음료를, 피부 건강을 위한 수분팩 등을 전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벤트를 통해서 총학생회를 좀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 조리부사관과, 제 6회 조리부사관 발대식

지난 4월 27일, 제 6회 조리부사관과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과 정욱현 병참교육단장, 그리고 군 간부급의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 조리부사관 학생들을 격려해주었다. 김석주 학과장은 “오늘 발대식은 학생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사관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엄숙한 자리이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커다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조리부사관으로서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봉사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바르고 참된 조리부사관으로서의 의롭고 숭고한 인생을 살겠다고 선서하는 날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부사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하였다. 정욱현 병참교육단장은 “군 전투력의 기본이 되는 급식제공의 정성을 갖춘 유능한 조리부사관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인성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을 이끌어갈 간부가 된다는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업에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학생들의 첫걸음을 응원해주었다.

8 언어재활과, 제4회 언어재활사 선서식

지난 5월 29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제4회 언어재활사 선서식을 시행하였다. 언어재활사 선서식은 3학년 학생들이 예비 언어재활사로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이다. 김정연 학과장은 “언어재활과 3학년 35명의 학생들은 그동안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언어재활사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언어재활사의 자부심과 소양의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평생 언어재활에 힘쓰면서 환자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라는 의미로 펜라이트가 선서생들에게 수여되었다. 정상직 총장은 “언어재활사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멋진 언어재활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선배들의 뒤를 이을 후배들은 아름다운 축가를 선사하였다. 선서에 다짐한 내용과 같이 빛과 희망이 되는 언어재활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선서식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은 교내 술언어임상센터에서 1년간 지역사회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진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술언어임상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30명이고, 현재까지 150명의 지역사회 대상자에게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9 글로벌실용음악과, 명장경진대회 및 Sol Bridge Summer Camp

지난 여름 글로벌실용음악과가 분주했다. 시작은 6월 9일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의 명장경진대회(제 24회 WPMC)였다. 보컬 앙상블과 댄스 퍼포먼스, 자작곡과 밴드 공연으로 한층 완성된 공연이 전개되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어진 6월 29일과 7월 6일 대전북합터미널에서의 총 24팀 명장 리싸이틀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7월 21일에는 “Sol Bridge Summer Camp” 행사로 솔브릿지 국제대학에 재학 중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학생들이 글로벌실용음악과를 방문하였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국제 학생들의 요청으로 K-POP 작곡 실습과 다양한 장르의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실용음악과의 자량인 Newschool Boyz의 깜짝 공연이 이어져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번 행사로 국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었고, 글로벌실용음악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글로벌실용음악과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10 조리부사관과, 명장경진대회

지난 5월 18일 조리부사관과에서 2학년 학생들의 명장경진대회가 열렸다. 3주 동안의 매일 이어지는 실습을 통해 메뉴와 레시피를 개발하여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군 급양관리관을 양성하는 조리부사관과 특성에 맞게 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메뉴 개발부터 조리의 전체 과정을 학생들의 역량으로 이루어냈다. 1등을 차지한 최병운 외 3명 학생들은 특식으로 ‘대구 튀김과 어묵’과 ‘샐러드’, 식판 메뉴로 닭고기 카레와 닭강정, 동치미와 사과주스를 메뉴로 선보였다. 음식 손질 과정부터 요리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튀김과 그에 잘 어울리는 소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병운 외 학생들은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들을 좋은 결과로 보상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11 유아교육과, 보육실습 보고회

지난 8월 30일 유아교육과에서는 2학년들의 보육실습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여름 6주간 현장 보육실습을 통한 성과를 공유하고, 후배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기 위한 자리였다. 2학년 32명 학생들은 실습 동안 사용했던 교구 소개, 교구 만들기, 대한 조언, 실습 준비와 실습 진행 사항 등 실습기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2학년 학생들은 “교구를 만드는 데에 많은 힘이 들었지만 실습이 끝나는 주에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아쉬웠다.”, “1학년 후배들이 항상 밝은 마음으로 학과 과정을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정진 학과장은 1학년과 2학년 모두에게 “항상 책임감을 갖고 멋진 유아교사가 될 수 있도록 힘내라.”는 응원의 말을 전했다.





12 호텔관광과, 롯데호텔제주 서비스직무교육 실시

호텔관광과 롯데호텔브랜드코스 24명 학생들이 5월 16일부터 2박3일간 제주롯데호텔에서 서비스직무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호텔리어로서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취업에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롯데호텔 제주브랜드코스는 Lotte Hotels과 Lotte Artvillas에 대해 교육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호텔취업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편 호텔관광과는 제주롯데호텔 뿐 아니라 ㈜대명레저산업과도 맞춤형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제주도 5성급 호텔인 라마다 프라자 호텔, 메종글래드 제주, KAL 호텔 등 8개 호텔과 맞춤형 교육 협약을 실시하여 굼직한 대기업들과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13 글로벌호텔외식과, 해외 인턴십 현황

우송정보대학은 매년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여러 지식들을 실무에 적용해볼 기회를 갖는다. 특히 글로벌호텔외식과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해외 특 1급 호텔에서 유급 인턴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다양한 국가에서 직접 경험하게 한다. 원어민 교수의 영문 이력서 첨삭과 영어 인터뷰 일대일 지도가 이루어진 후, 학과에서 직접 해외 호텔과 연락하여 인턴십으로 연결하고 있다. 2016년에는 호주 Shangria Hotel(6명), 호주 레스토랑(3명), 카타르 도하 Grand Hyatt 호텔(1명), 중국 신라호텔 2명이 해외인턴십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호주 Shangria Hotel(이조은, 이지원, 김단희), TAFE(김효선, 박은비), 뉴질랜드 Langham Hotel(최승희), 베트남 JW Marriott Hotel(최정현), 몰디브 Centara Grand Hotel(양서현), 태국 Sofitel Hotel(곽서형), Marriott Luxury Collection Resort&Spa(황규진), Anatara Riverside Hotel(김률희)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글로벌 호텔리어의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14 글로벌호텔외식과, 영어발표경진대회 개최

지난 7월 15일, 글로벌호텔외식과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고등학생 중 33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여 'My Dream, Global Hotelier'를 주제로 한 영어 발표대회다.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예은(서산여고3)과 조은진(서산여고3), 박수아(경북북지스고3)은 우송정보대학 글로벌호텔외식과와 공동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호주 호텔 명문대학인 ICHM(International College Hotel Management)으로 4박 5일간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탐방 프로그램은 글로벌호텔외식과의 강신영 교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ICHM 정규 수업을 수강하고, 기숙사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애들레이드와 시드니 지역의 와이너리와 관광시설을 탐방하는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글로벌 호텔리어로서의 꿈을 다시 한 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우송정보대학 글로벌호텔외식과와 호주 ICHM대학에서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으로서 호주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값진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향후에도 우송정보대학은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명장으로서의 성장 및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표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5 INBP, 프랑스 INBP 본교 연수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루앙 INBP 본교의 "Déclinaison de produits en pâtisserie française" 연수에 Jean-Pierre GODIER 교수님과 INBP 페이스트리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INBP 김다애, 김희은 학생과 전국 고등학생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김유림, 유현성 학생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은 Eclair tout chocolat, Millefeuille, Tarte cassis praliné, Baba aux agrumes, Entremets chocolat noisette et citron, Sucette gianduja 등의 제품들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였다. 전통적인 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로, 새로운 방법을 접할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우송정보대학 Master Class INBP에서는 5월 31일에는 Nicolas Boussicaud 교수의 Viennoiserie Garnie 특강, 6월에는 Aurélien Le Mouillour 교수의 Boulangerie 특강 등이 개최되어 제빵 기술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다. 올해부터 글로벌제과제빵과와 제과제빵학부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랑스 국립제빵제과학교인 INBP의 교육과정을 밟아 오고 있다.



세상을 향한 꿈을 펼치다

세계를 품은 나, 세계를 향한 꿈을 펼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영어 발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학과별로 진행된 예선을 통과하고 2차 예선을 거친 13팀은 “My Global Life”라는 주제로 영어 발표를 하며 자신의 꿈을 표현하였어요.
무대 뒤에서는 발표 전 서로의 프리젠테이션을 체크해주고, 제스처와 동선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한창이었습니니다.
치열했던 영어발표대회에서 뷰티디자인학부(민윤선 외 3명), 기계자동차설비학부(김기석 외 2명),
글로벌호텔외식과(김보은 외 3명)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호주로 연수를 다녀온 글로벌호텔외식과 김보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장은정 기자



Q. 경진대회 준비 과정을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외국인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주 2-3회 정도 외국인 교수님을 만나며 내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스크립트를 적어 교수님께 첨삭 받았어요. 스크립트 최종본이 나온 후에는 완벽하게 외우기 위해 끊임없이 입을 움직였고요, 녹음을 해서 반복적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대본을 거의 외웠을 땐 제스처와 표정 연습도 함께 하며 가장 자연스럽게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 준비하면서 특별한 각오는 있었나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게 된 계기였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생활이나 강의에 적응하느라 발표준비를 빨리 시작하지 못해 초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팀원 모두가 우승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열심히 임했고, 교수님도 열의를 갖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Q. 해외연수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6박 7일 동안 International College of Hotel Management(ICHM)의 Career Week에 참석했습니다. Career Week은 세계 각국에서 온 27명의 학생들이 ICHM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져 애들레이드 관광도 할 수 있었습니다.

Q.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호주로 연수를 가보니, 내년에는 꼭 해외로 인턴십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Q.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학교생활 하세요~ 모두 Cheer up!



WELCOME TO AUSTRALIA

호주에서 홈스테이를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호주에서 시원하게 즐긴 그대들이 있으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방학 동안 토익사관학교가 열렸습니다. 토익집중수업을 통해 단기간 눈에 띄는 실력 향상을 했겠죠?

심지어 성적 우수장학생으로 호주까지 다녀왔다고요?

넓은 바다, 화사한 태양, 모든 것이 그림 같은 호주에서 토익사관학교 학생들은 어떤 꿈같은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한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주 동안의 홈스테이를 했다는데..

정말 궁금한 마음을 부여잡고 유아교육과 조수빈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장은정 기자

Q. 토익사관학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토익사관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원어민 교수님을 포함한 교수님들의 인텐시브한 수업으로 단기간 실력 향상을 할 수 있고, 최우수 학생들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해서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Q. 토익 공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단어장을 만들어 틈틈이 외우기도 했고, 문법 규칙을 정리하여 문장을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듣기 실력 향상을 위해 mp3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열심히 들었어요. 실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는 하루에 1회분씩 시간을 재어 모의토익을 풀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을 통해 영어를 몸에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토익사관학교 수업은 어떠했나요?

총 5주 동안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Reading 수업과 Listening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토익 책으로만 공부했을 때는 몰랐던 영단어와 숙어들, 생활영어 팁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학우들과 정도 들고, 교수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 최종 모의토익에서 모두들 점수가 향상되어 대학 첫 방학을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Q. 호주를 다녀오셨다고요. 일정은 어땠나요?

평일 오전에는 IELI Adelaide campus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IELI 첫 날에는 레벨 테스트를 보고 Communication, Reading & Writing, Listening 3개 반에서 각자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은 대학 수업방식과 비슷했지만, 거의 매일 시험을 봤다는 건 차이가 있었어요. 시험 결과는 다음 수업시간에 바로 알려주어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1주차에는 수업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2주차에는 확실히 실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오후에는 같이 간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들레이드 시내와 가까운 관광지를 여행하고, 관심 있는 산업체를 탐방하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홈스테이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한 음식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거실에 둘러앉아 TV 프로그램 시청도 하면서 정말 가족같이 지냈어요.



Q. 전공 관련한 산업체 탐방도 하셨어요?

네. 함께 간 친구들의 전공이 모두 달라서(글로벌제조제빵과, 유아교육과, 철도교통과, 외식조리학부, 일본제조제빵과) 다양한 전공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헤이그 초콜릿 팩토리(Heigh's Chocolate Factory), 르 코르동 블루(Le Cordon Bleu), 차일드 케어 센터(Child Care Center) 등을 방문했어요. 전공 체험을 위해 버스와 트램,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아들레이드 곳곳을 누빌 수도 있었죠.

Q. 호주에서는 어디서 지내셨어요?

2명씩 같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세 가정 모두 분위기가 달라 더 좋았어요. 홈스테이 하우스는 매우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1인당 방 하나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침에 학원갈 때 런치 박스를 싸주셨고, 버스로 같이 등교하였습니다.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 이상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덕에 회화 실력도 쑥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까운 바닷가와 와일드 파크(Wildlife Park)를 가서 캥거루와 코알라도 보았고, 장도 함께 보면서 호주의 식자재를 살펴볼 수도 있었어요. 한번은 저희가 닭볶음탕, 삼겹살, 계란찜 같은 한국음식을 해드렸는데, 아주 좋아하시며 맛있게 드셨어요.

Q.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연수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제 꿈을 향해 소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학교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Q. 토익사관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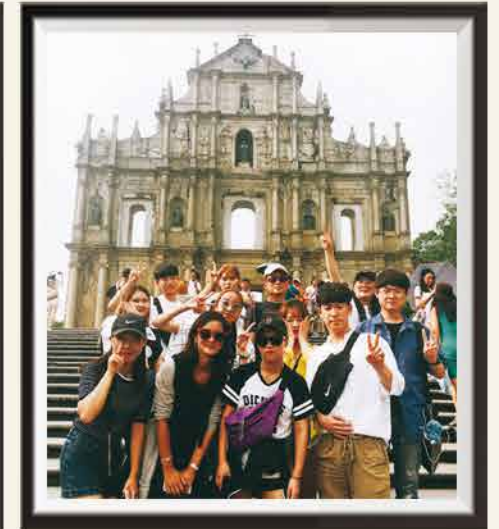
우선 무료로 흘러 보낼 수 있었던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영어실력 향상 뿐 아니라 저 자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즐거운 벅찬 경험을 잊지 않고,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값진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 도전해보세요!



우송튜터링 장학생

우리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바로 우송튜터링인데요.
우송튜터링은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후배 및 동기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멘토링처럼요.
1학기가 마무리되면서 효과적인 학습방법 및 튜터링 결과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학생들은 그동안 터득한 나만의 공부법과 성과를 아낌없이 발표하였고
그 중 최우수 튜터링으로 뽑힌 학생들은 홍콩&마카오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자정보과 2학년 튜터 이지현 학생을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줄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 이채원 · 차지현 기자



Q. 튜터를 자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1학년 때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덕분에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선배들과 교류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덤이었죠. 2학년이 되면서 반대표를 맡게 되면서 튜터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후배들이 전공 공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제 실력도 늘었고, 후배들의 성적 향상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튜터링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Q. 이번에 튜터링 장학생으로 해외 연수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최우수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튜터 학생들은 홍콩&마카오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활을 열심히 할 목적으로 시작한 스터디라고 생각했는데, 선후배간에 우애와 친목도 다질 수 있고 해외연수 기회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후배들도 튜터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해외 연수 기회도 꼭 얻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홍콩 다녀온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저희는 모두 전공이 달라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다른 학과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전공 분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도 얻게 되었죠. 하루 일정이 끝난 후 모두 한 방에 모여 야식을 먹으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던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Q. 홍콩&마카오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8월 20일부터 4일간 홍콩과 마카오에 머물렀어요.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란타우섬에 도착하여 '웅핑 360 케이블카'를 타고 세계최대규모인 천단대불과 포린사원에 다녀왔습니다. 홍콩 침사추이 야시장에서 허유산 망고주스도 먹어봤고요. 저녁 8시부터는 그 유명한 '심포니 오브 라이트' 야경도 감상했어요. 둘째 날에는 홍콩 폴리테크닉대학교(홍콩공과대학교)에 방문하여 홍콩 대학생들의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고요, 스탠리베이에 방문하여 드넓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의 해변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피크'의 야경도 빼놓을 수 없죠. 셋째 날에도 관광은 이어졌어요. '윙타이신 사원'으로 홍콩 최대 규모의 도교사원에 방문하여 화려하고 다채로운 조각품들을 감상하기도 하고, 마카오 '성 바울 성당'에서 '세나도 광장'까지 이어지는 건축물을 감상하기도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은 태풍 하토로 인해 비행기가 엄청나게 연착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끼리 즐거운 추억거리를 하나 더 만든 셈이죠!

Q.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관심분야가 다른 사람들과는 친해지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구요.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소중한 사람들을 얻게 되었다고 자신합니다. 튜터로서 진심을 다한 지난 시간에 대한 선물 같은 홍콩&마카오 여행, 돌아오기 매우 아쉬웠지만 앞으로 캠퍼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간 또한 기대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튜터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튜터와 튜티의 긍정적 교류활동을 응원합니다!



대상

떡의 반란이 시작된다!

요즘 창업이 대세죠. 아무리 누구나 하는 창업이라고들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연 2회 '벤처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화시켜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돕고 있어요.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테크노디자인센터 시청각실에서 벤처창업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나 치열했던 예선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했어요.

홀로그램, 어플리케이션(App), 자판기, 카드 리더기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한 창업아이템들의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그 중, Good chef(외식조리과)의 아이템인 "떡의 반란"이 영예로운 대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 하정인 기자



Q. 떡의 반란, 어떤 아이템인가요?

햄버거, 빵, 피자 같은 밀가루 음식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모두 품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쌀로 만든 떡이 밀가루 제품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떡의 반란'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저희는 백설기에 불고기나 야채에 피자소스, 우유크림 등을 버무려 한 끼 식사나 디저트로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명도 우송을 의미하는 'Sol기'라고 생각해봤어요.

Q. 준비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떡'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니 아이디어가 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래떡을 메인으로 해볼까, 어떤 떡이 더 좋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고, 메뉴 개발과 시장 접근성, 기호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백설기를 주제로 한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준비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바쁜 학교생활로 인해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웠어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본선을 준비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교수님의 응원과 여러 차례의 연습 덕분에 발표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팁을 남겨주시면?

작은 아이디어라도 충분한 시장조사를 거친 후 기존의 것에서 창의성을 조금 가한다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현대인들의 선호와 기호를 따져보고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전공을 살려 창업 발전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대상 수상자들, 이상 외식조리과 Good chef 정대건, 한상준, 금진선, 하미소, 변준석이었습니다.



최우수상

나도 한다, 창업!

벤처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한 다른 팀을 또 만나볼까요?

수많은 팀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팀은 바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는 Solgeo(글로벌호텔외식과) 팀이었습니다.

한때 푸드트럭(food truck)이라 하면 노점상부터 떠올랐지만, 지금은 축제 한 켠에 자리 잡은 귀여운 캠핑카 모양의 푸드트럭과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은 익숙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밤, 대전 달빛소풍에서 맛보았던 큐브스테이크 푸드트럭을 떠올리며 군침 꿀꺽...^^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푸드트럭의 음식들이 맛도 모양도 일반 음식점에 뒤지지 않는답니다.

메뉴도 얼마나 다양한지 예~전의 푸드트럭은 떠올리시면 안돼요!

심지어 서울의 밤도깨비 야시장 탐방, 제주도 푸드트럭 경로를 따라가는 여행도 유행하고 있다죠.

누구는 하와이까지 가서도 쉬림프 푸드트럭에 줄 서서 맛보았다고 자랑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저의 사심을 가득 담은 푸드트럭 창업을 꿈꾸는 Solgeo(글로벌호텔외식과 신하은, 이상준, 윤현아, 손인기) 팀을 만나보았습니다.

❖ 이주경 기자



1. 경진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창업’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익숙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창업에 평소 관심이 높았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위의 많은 실패 사례들을 보고 ‘역시 성공하는 창업이란 어렵다’는 것을 느껴 조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의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운 좋게도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2.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평소 하던 생각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부터 끝까지도 소홀할 수 없었고,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원들과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조원들이 있었기에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저희 팀은 푸드트럭으로 창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푸드트럭 음식의 위생적인 측면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소비자들을 생각하면서 위생적이고 저렴하고 당연히 맛도 있는! 푸드트럭을 현실화시켜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면 종종 보이는 계산 자판기 같은 시스템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자판기의 화면에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그 ‘음식 자판기 시스템’을 푸드트럭에 도입해 보았습니다. 가끔 푸드트럭에서 돈을 만진 손으로 바로 요리를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건 정말 비위생적이거든요. 이 자판시스템 이용하면 조리하면서 돈을 만지게 되지 않아 더 위생적인 음식을 만들 수 있답니다. 또 셰프들은 음식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더 질 높은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고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초반에는 금액이 다소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수상의 부상으로 신라호텔에 다녀오셨다고요?

서울 신라호텔을 방문하여 23층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 ‘라연’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레스토랑과 달리 드레스 코드도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한식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다니! 가장 한국다운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 뿐 아니라 직원들의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가득 담긴 표정과 말투는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고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들게 했어요.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푸드트럭에 적용한다면 기존에 있던 푸드트럭에 대한 ‘뒤떨어진’ 이미지가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는 tip?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100%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창업 아이템으로 식상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보다는, 기존 아이템과 차별성을 부각해 자신감을 갖고 발표해야 합니다.

Be confident everyone!



1

정규직의 기회와 짧은 기간 안에
목돈마련을 원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Q.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의 제공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들에게는 2년 동안 근무 시 최대 1,600+a(이자)의 목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입니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5세~34세의 취업준비생들이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가능합니다.

Q. 적립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 후 2년간 월 125,000원을 적립하고(2년간 300만원 적립) 동시에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함께 적립하여 최종 1,600만원+a(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최소 2년 동안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 후에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전환하여 가입하면 최대 7년 동안 장기적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Q.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먼저 인턴제의 경우, 청년 참여 신청(워크넷) → 약정체결 → 인턴근무 → 정규직 전환 및 청약신청(청년채움) → 공제부금 적립(24개월) → 만기지급(1600만원+이자) 절차로 진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 참여신청(워크넷) → 정규직 전환 및 청약신청(청년채움) → 공제부금 적립(24개월) → 만기지급(1600+이자)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에서 하면 됩니다.



2

취업!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

Q. 취업성공패키지란 무엇인가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설정하고, 통합지원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Q.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인별로 면담을 진행하고 직업심리검사를 통하여 아직 뚜렷하게 직업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직종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1단계를 성실하게 임하면 참여수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2단계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하루에 18,000원씩 한 달에 최대 284,000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여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취업처를 알선해주고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Q.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아직 취업에 대한 목표가 불확실한 학생들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배움공제 뿐만 아니라 심리검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는 동캠퍼스는 국제경영센터(E2) 109호에
서캠퍼스는 사회복지관(W10) 109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가 걱정이라면,
혼자서 고민 하지 말고 취업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든든한 취업 서포터즈! 취업지원센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취업이죠! 졸업은 점점 다가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죠, 바로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취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센터입니다!

현재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부터 취업성공패키지까지!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이예진 전문컨설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이채원 기자

우리는 일본으로 갑니다!

국내 취업이 어려워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세요?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 뻗어나가야죠.

'K-Move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로벌협력센터에서는 여러분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K-Move 스쿨과 해외 취업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글로벌협력센터

최보환 센터장님과 김예영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 장은정 · 유지현 기자



우선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도 단기간 안에 간단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있어, 일본어 실력이 월등히 향상됨에 따라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해외취업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정부와 학교가 모든 비용을 100%지원하여 학생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겠죠?

Q. 해외 취업을 일본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본은 경제성장에 있어 회복이 빠른 뿐만 아니라 성장이 크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은 이공계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기계, 설비, 설계, 자동차 분야로의 취업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죠.

Q. K-Move 스쿨의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현재는 이공계 계열의 학생 11명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Q. 어떤 학과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기계, 전자, 컴퓨터계열과 소방, 철도, 건축 등 이공계열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어요. 다른 전공이라도 가능한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을 맺어놓은 기업들이 기계·자동차부품·설비·설계 계열이라 졸업예정학생 중 우선 대상 학과에서 지원받았죠. 혹시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너무 염려 말았으면 해요. 일본에 관심이 있고 성실하다면 6개월 정도 준비를 마친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답니다.

Q. K-Move 스쿨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K-Move 스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열정을 가지고 해외로 나아가려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우리 학교에서는 '기계, 자동차부품, 설계설비 분야'의 교육을 기업요구에 맞춰 실시하고, 외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본어 회화 및 일본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5월 말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에 일본 현장 및 문화체험과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3월 말(3개월)까지 일본 현지교육이 이뤄진답니다.

Q. K-Move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설계정보를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로 추출하여 화면을 보면서 설계하는 것

* CATIA(Computer Aided Th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

자동차나 항공기를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해 만든 3차원 컴퓨터 지원 설계 프로그램

Q. K-Move 스쿨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첫째는 성실한 모습을 봤어요. 학생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선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기계, 자동차, 설비·설계 분야에 관심이 높고, 일본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열정을 가진 학생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어요.

Q. 현재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현지에서 취업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일본어 교육과 해당 분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졸업 예정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동안 full-day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어민 교수님 세 분과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일본어를 가르치시고 전공 관련 교수님들께서 CAD와 CATIA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Q. 일본 현장 문화체험과 3개월 일본현지교육은 어디로 가나요?

우선 9월 20일부터 2박 3일 간 후쿠오카로 떠나 현장체험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일정에 따라 현지교육도 후쿠오카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Q. 현지 교육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K-Move 스쿨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즉 일본어와 CAD, CATIA를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산으로 설계하는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학은 물론 전산을 계속 배울 예정이에요.

Q. 학생들이 취업하게 되는 취업처를 알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테크노스마일, 주식회사 야마토텐교사, 타카키제작소, 노무라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즈키, 주식회사 키쿠치공업소에 학생들이 취업하게 됩니다.

Q. 다음 K-Move 스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막대한 부분이 많은데 K-Move 스쿨은 어학교육도 현지에서까지 이어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전공을 살려 많은 것을 해볼 수 있고,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평생직장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취업을 했었다는 경험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시간동안 해외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지만 막막하신 분! 해외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 글로벌 인재가 되어 세계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 글로벌협력센터가 여러분의 꿈이 되어드립니다. K-Move 스쿨에 도전해보세요!



우송체육대회

지난 5월 10일과 11일, 열띤 응원과 우렁찬 함성이 가득했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축구, 농구, 발야구 등 총 8종목과 이벤트 경기로 진행된 우송체육대회는
5,000여명의 학생들이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뜻 깊은 자리였는데요,
과제와 시험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럼 에너지 충전하러 함께 떠나볼까요?

❖ 김민혁 기자



뜨거운 땀냄새와 함성으로 운동장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우렁찬 응원도 한몫 했는데요. 선수들도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이벤트 게임도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총쏘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더위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를 마지막으로 스릴 넘치는 우송체육대회는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인의 젊은 패기를 볼 수 있었던 체육대회 현장이었습니다.
종합우승은 매 경기마다 멋진 모습으로 감동을 준 스마트경영학부가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기계자동차설비학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우정인 덕분에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날이 좋아서, 모두 함께!

체육대회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날이 좋은 5월,
우정문화제 <날이 좋아서>에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뜨거웠던 축제의 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 하정인 기자

FESTIVAL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열린 우정문화제
그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우리 커플 됐어요!'

매력이 넘치는 10명의 선남선녀가 호응을 맞추는
커플 코너입니다! 각자의 매력발산 후, 파트너를
정하여 게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여러 게임을 거쳐
최고의 커플을 가리게 되었는데..

최고의 커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금까지!
내년엔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즐거운 축제에선 빠질 수 없죠!
바로 '모두 나와 가요제!'

예선을 통과한 쟁쟁한 본선 진출자들의 우승을 둘러싼
쟁탈전! 정말 치열한 무대였죠. 그 분위기를 몰아
글로벌실용음악과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를 뽐내며 자리를
빛내주는 글로벌실용음악과의 실력은 혀를 내두를
경도였어요.



무대 위에서만 즐거운가? 무대 밑 부스에서도 즐겁다!

무대 밑에서는 학과에서 오랜 시간동안 아심차게 준비한 부스들이
즐비해있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메뉴 가득
먹거리 부스, 저도 하나 장만한 귀금속디자인전공의 은 악세사리 제작
판매 부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화려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
그리고 페이스페인팅을 도와준 뷰티디자인학부! 빠질 수 없는 추억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부스까지!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었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

초대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그룹 디아이와 레이샤가 장내의 열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입을 다물 수도 눈을 땔 수도 없게
만드는 맛있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뒤를 이어 환상의 남성 듀오,
길구봉구의 감미로운 하모니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잡을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 크러쉬가 축제의 마지막을 성공적으로
장식해주었습니다. 역시 떠오르는 음원강자답게 능숙한 무대매너와
독특한 음색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폭죽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10분이 넘도록 이어진 폭죽을
바라보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어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폭죽놀이가
끝났음에도 축제 열기는 쉬이 식지 않았는데요. 그 아쉬움을 달래주듯
우정문화제만의 클럽 파티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이루어진
퍼레이드! 마치 스페인의 이비자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날 제대로 들썩이며 다이어트 했다고!

우정인들의 축제, 우정문화제<날이 좋아서>

우정인들의 뛰어난 실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올해도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학우들의 안전을 책임져 준 조리부사관과 학생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온전히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축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 우정문화제 <날이 좋아서>였습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살면서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성과 진로 등 여러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게 때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에 더 집중하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저를 성장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은 고민은 독이 되는법!
 가끔은 너무 많은 고민들 때문에 공공 속앓이를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 학생코칭센터가 있습니다!

❖ 이채원 기자

학생코칭센터는 대학 내 상담센터인데요, 다양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심리상담전문가를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만난다고 하면 괜스레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위축되기도 해서 선불리 다가가기 어려우시죠? 안 잡아먹는데 말이죠 ㅎㅎ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다가가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또래상담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학교에서 활동하는 또래상담자 친구들은 학생코칭센터에서 진행하는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을 통해 선발되어지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또래상담자 경험이 있거나 또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또래상담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활동을 해왔다고 하네요. ^^

또래상담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공감과 따뜻한 조언으로 마음의 위안을 찾도록 도와주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히 또래라는 점이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기에 더 편안해서 많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들어가는 고민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 멀리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또래상담자들이 있습니다.



학생코칭센터는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2층 205호, 서캠퍼스 사회복지관(W10) 1층 109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똑똑, 부딪 갖지 말고 언제나 열려있는 학생코칭센터 문을 두드리세요! 방문 시 미리 예약하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아, 한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심리데이' 인데요.

심리데이에는 심리상담전문가와와 일대일 상담이나 다양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이나 원예, 모래놀이 등을 이용한 심리 치유도 경험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나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는 11월 3일에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더 풍성한 심리데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이 노래' 어때요

무더웠던 여름 불별이 무색하게 서늘한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형형색색으로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나뭇잎들을 보니 '가을이구나' 싶어요.
올해도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차가워진 밤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 신지현 · 유지현 기자

AKMU 악동뮤지션 - 시간과 낙엽



제목부터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시적인 가사에서도 짙은 가을 냄새가 풍겨옵니다.
이 곡은 한글날에 발표된 곡으로 모든 가사가 한글로만
이루어져 있기도 해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시간과 낙엽'을 들으며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에
머물러보는 건 어떨까요?

질은 - Feel Alright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늘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하루들로 고단한 날을
보내진 않았나요?
모두가 잠든 시간, 누구 하나 위로되는 이 없고
외롭다 느껴질 때 Feel Alright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잔잔한 배경음악과 차분한 목소리로 하루를
편안히 위로해드립니다.

우송시네마

가시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한풀 꺾인 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우송시네마에서 영화 한편 하며 여유있는 가을을 느껴보는 건 어떠세요?

❖ 신지현 기자

플립 (Flipped, 2010)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우연히 본 듯한 느낌
브라이스와 옆집 소녀 줄리의 7살 때부터 시작된 6년 간의
서로의 감정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하나의 사건마다 소년과 소녀가
느끼는 감정을 교차편집하여 관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담담한 독백은 마치 솔직한 마음을 담은 일기장 같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 소녀에게서 첫사랑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무심코 던져버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울고 웃던 순수한 어린시절
누군가를 좋아했거나 사랑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그 시절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영화. 플립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Doctor Strange, 2016)



사고로 절망에 빠져 위기가 닥친 천재 외과의사 '닥터스트레인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 간 곳에서 '에이선트 원'을 만나 세상을 구할
강한 능력을 얻게 되면서 히어로로 거듭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화려하고 정교한 CG에 감탄했고,
어느 순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의사가 된
주인공을 보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송북클럽

❖ 차지현 기자



언어의 온도 이기주 저 | 말글터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다. 누군가 무심코 뱉은 뜨거운 언어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차가운 언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 속 습관적인 나의 언어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저자는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책에 담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에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한 온도의 음식을 먹듯 찬찬히 곱씹기를 권한다. 저자의 언어는 따뜻하고 결이 고와 찬찬히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최고의 휴식 구가야 아키라 저 | 알에이치코리아

왜때문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걸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충분한 수면과 반신욕, 휴가를 떠난다고 해도 피로감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우리의 뇌가 지쳤다. 저자는 뇌의 피로를 풀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으로 ‘마인트풀니스’를 제안한다. 의식이 과거와 미래에만 향해있고 ‘지금 여기’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지치고 짜증과 무기력, 산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일상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지금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뇌를 쉬게 하는 해답이다. 진정한 휴식은 나를 배려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이 책이 전하는 최고의 휴식법을 따라가보자.



군함도, 끝까지 않은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김승은, 김영환, 김진영 저 | 생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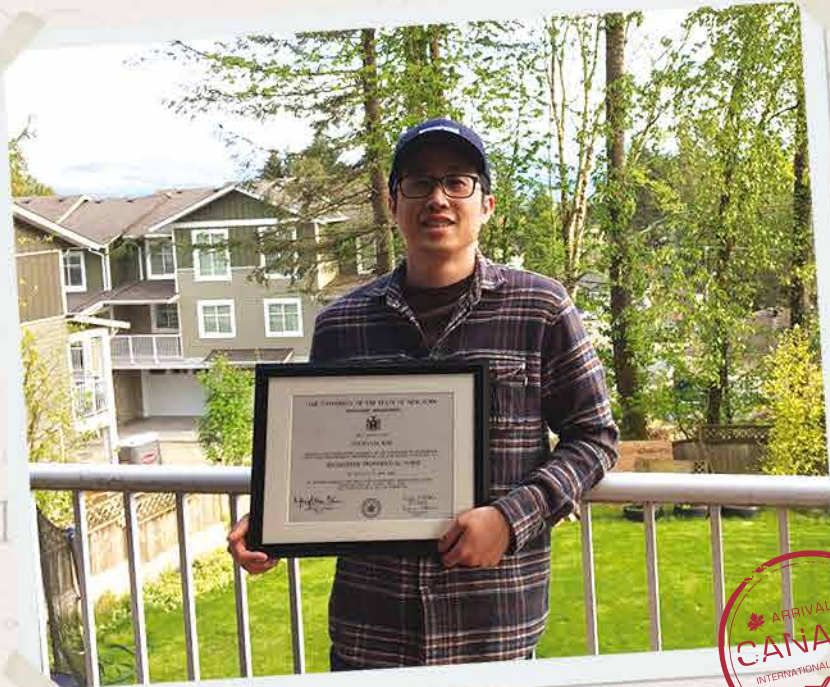
영화 <군함도> 개봉으로 과거 하시마 섬 강제 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작가의 주관에 포함된 소설보다는, 역사 자체를 고증하고 설명하는 사실 위주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이 책에는 한일 과거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유족·한일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당사자들이나 주변인의 생생한 증언과 사진, 친필 기록 등까지 상세히 보여져 당시의 아픔과 참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고, 이런 역사를 외면한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안타까움을 느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강제동원 100년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근본의 노력은 진실을 기록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대학생 재테크 김나연 저 | 조선앤북

요즘에는 현금을 쓰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나도 대학생이 되면서 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다. 친구들과 즐거운 점심식사로 해야하고, 카페에서 수도도 빠질 수 없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옷도 화장품도 사야하고.. 게다가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지출도 늘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난 것을 확인하면서 심각성을 깨달았다. 고정소득이 없는 나 같은 대학생들에게 돈 관리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통장 관리법, 용돈 및 알바비 관리법, 가계부 운용법 등 실용 팁들을 알려준다. 나는 생활비와 알바비, 공돈 통장 등 ‘통장 쪼개기’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꽤 유용하다. 특히 공돈통장은 현금을 쓰고 남은 원원, 이천원도 넣어두어 ‘티끌 모아 태산’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나에게 맞는 관리법으로 재테크하여 부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학생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한 김유겸 졸업생 인터뷰



푸르른 녹음이 번지는 올 여름, 간호과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3학번 선배가 NCLEX-RN(National Council Licens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즉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NCLEX 자격증은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국가 면허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국내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물론 비용과 시간 투자도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 이주경 · 유지현 기자



저희는 NCLEX-RN 자격증을 취득하신 김유겸 선배님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Q. 간단한 본인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간호와 13학번 김유겸입니다. 작년 캐나다에 와서 NCLEX 자격증을 취득 후, 현재는 캐나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준비하며 캐나다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학교 다닐 때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미래의 제 모습을 꿈꾸며 현재를 충실히 보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구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몰두했어요.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기도 했구요.

Q.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NCLEX를 취득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당연합니다. 강의에서 배운 간호전공 지식들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NCLEX는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 내용을 영어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 지식이 없었다면 준비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Q. NCLEX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사실 입학 전부터 해외 간호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전공 공부는 물론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면서 NCLEX 시험에 필요한 절차를 파악하여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Q. NCLEX 준비과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주로 인터넷 검색과 NCLEX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서류 진행을 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험을 보기까지는 약 9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접수 및 시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서류준비, 접수, 시험까지 대략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Q.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

NCLEX는 서류준비, 접수, 공부 등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방식이 한국에서 보던 방식과는 생소하다보니 시험 볼 때의 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OMR 방식은 모르는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아는 문제부터 푸는 것이 가능했는데, NCLEX는 CAT 방식이라 모르는 문제라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NCLEX 시험은 시험 보는 중에도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컴퓨터가 멈춘다는 이야기를 접하고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합격선에 도달해도 시험이 종료된다 했어도 말이지요. 하지만 결국 본인이 얼마나 잘, 세세히 준비했는가 합격에 결정을 미치는 듯 합니다.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번에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Q. 간호사로 일한 경험은요?

한국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P.A(Physician attendant)로 1년 정도 일을 하고 캐나다에 왔습니다. P.A란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하게 되는 일인데, 저는 남자간호사라 P.A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캐나다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향후 캐나다 간호사 면허증을 딴 후에는 이곳에서 일을 하며 차곡차곡 경력을 쌓을 생각입니다. 이후, 좀 더 일에 능숙해지고 여유가 된다면, 스페셜 파트에 대해서 더 공부할 계획입니다.

Q.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간호과 후배들에게 한마디해주세요.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여 반드시 국가고시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NCLEX를 꼭 취득하고 싶다면, 영어와 의학용어를 공부하는데 신경을 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NCLEX 시험을 볼 때 주어진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어와 의학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NCLEX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있어 이메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터뷰임에도 친절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CLEX에 관심이 있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김두영 소방관

지난 7월, 2017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조회 버튼을 누른 순간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가 있었는데.. 바로 소방안전관리과 2학년 김두영 학생이었습니다. 재학 중 합격이라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 낸 김두영 학생!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 이채원 기자



Q. 소방안전관리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학창 시절 소방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가 역사가 깊고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소방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과라는 점도, 능력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어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의 권유로 의무소방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의무 소방원의 경험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더욱 감명 받게 되었어요. 제가 할 일은 시험 준비를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것 뿐이었어요.

Q. 소방공무원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군복무 시절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재를 구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봤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 마다 소방공무원이 되어 있을 제 모습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Q. 재학 중에 시험을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16년도 채용시험에도 응시를 했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심리적인 위축감이 컸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며 오직 '합격'이라는 목표하나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Q. 나만의 특별한 공부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각자 공부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반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해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보았어요. 결국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가요?

소방관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하필 소방관?”이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은 복지 수준과 위험한 근무환경까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면”이라는 생각으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던 처음 마음을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슈퍼맨 같은 사명감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씩 노력한다면 목표에 서서히 다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후배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김두영 학생은 졸업 후 강원도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남다른 패기와 끈기로 꿈을 이룬 자랑스러운 우송인 김두영!
앞으로 멋진 소방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솔펫애견미용으로 오세요 멍!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모두 여기 주목!

수많은 동물 중에서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귀여운 강아지 참 좋아합니다.

귀여운 꼬리와 말강한 발바닥! 주변에서 실제로 키우는 분들도 많구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함께 일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도 있나요?

하지만 생각은 생각일 뿐! 실제로 구체화하긴 힘들죠.

여기 전공을 살려 청년창업에 성공한 학생이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솔독'의 대표 이준식 학생을 만나볼까요?

❖ 이주경 기자

1.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완동물학부 동물관리전공 2학년 이준식입니다. 창업동아리 '솔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 애견센터(S4)에서 창업을 하셨다고요?

저희 '솔독'에서는 '솔펫애견미용'을 창업했습니다. 강아지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미용샵과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놀이터를 함께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3. 창업과정을 알려주세요.

학교에서 취업과 창업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교내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되어 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동아리 일원들과 학과 건물의 비어있는 1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아이템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양동은 비싼 학생과 교직원들이 많아 평소 강아지 관리를 잘 못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여 미용샵과 놀이터를 함께 운영하는 샵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4. 창업을 해보니 힘든 점이 있다면?

동아리 원들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

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표로서 생각한 것과 팀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비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5. 현재 일에 대한 미래의 계획?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많아지고 있고, 그에 비례해 반려동물의 수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한 애견사업은 전망이 좋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앞으로 추세에 맞춰 저희 컨셉도 변화해가겠지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인만큼 현재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6.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사업이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창업 전에 '내가 대표가 된다면?'이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먼저 던져보고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학생창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사회에 나가기 전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학생일 때 꼭 도전해보기를 추천해요. 창업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1년 동안 보고 배우고 느낀 많은 것들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예비창업인들 모두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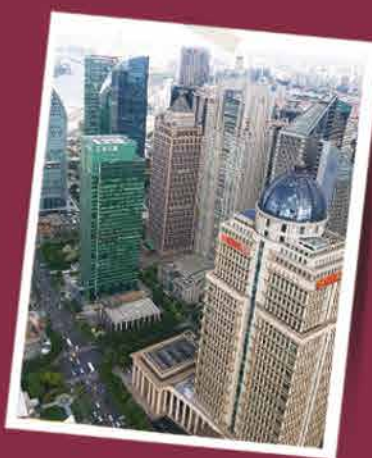




우송장학생과 떠나보자 중국으로!

즐겁지만 아쉬운 여름방학의 끝자락,
지난 8월 23일 저는 우송장학생 중국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더웠지만 그 더위조차 무색해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4박 5일 동안의 중국 여행,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 이주경 기자



→
한쪽 손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한쪽 손은 친구를
꼭 붙잡고 있었답니다!!

첫날 첫날은 상하이의 동방명주를 관광하였습니다. 동방명주는 상하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 상하이의 고층건물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데요. 바닥이 투명하게 되어있는 곳도 있어 그 위에 올라서면 아주 아찔하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도 열심히 버티며 화려한 경치를 즐겨보았습니다. 상하이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상하이의 거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 첫 관광지로는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튿날 이튿날은 쑤저우로 이동하여 명문대학교인 '쑤저우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쑤저우대학교는 우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매년 우송의 학생들이 연수를 가는 등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쑤저우대학교의 총장님도 저희를 반기기 위하여 맞이하고 앞으로 우리 대학과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키는 논의를 하는 건설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쑤저우대학교 캠퍼스를 탐방하며 고풍스러움에 반하고 면학 분위기에 놀랐답니다.



셋째날 셋째날은 남경으로 이동하여 남경의 부자묘(夫子庙)를 가보았어요. 부자묘는 난징에서 가장 큰 공자 사당으로 난징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중국 송나라시절의 옛 건물들에서 어렴풋이나마 옛날 송나라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과거 시험이 치러졌던 장소인 장난궁위안(江南贡院)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의 수험생들의 모습을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그 시절에도 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기구를 가져갈 수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수염으로 손바닥에 문제를 써서 나오는 수험생도 있었다네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수험생들의 간절한 마음은 어디나 비슷한가봅니다!

넷째날 넷째날은 우송을 졸업한 중국유학생들의 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졸업한 후에도 잊지 않고 매년 동창회를 열어 사업적, 지식적 교류를 나누는 졸업생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힘들 때 서로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나도 졸업하면 동기들과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저에게 우송 캠퍼스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소중하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적응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중국 유학생들을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먹고 즐겨볼걸 하는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언제나 여행의 끝은 아쉬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죠. 앞으로 더욱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개강을 맞이했네요. 우송에서의 해외 연수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우송정보대학, 2017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선정

〈MBS 대전〉, 〈뉴스1〉, 〈금강일보〉, 〈대전 투데이〉,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05월 31일



우송정보대학,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분야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 전국대학 중 유일하게 수상 중부권 최고전문대학 인정 -

〈Mbs, 뉴스1, 금강일보, 디트뉴스, 대전투데이, 뉴스1코리아〉
09월 19일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2회 방학중 “현장전문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코칭” 증등교원 직무연수 실시

〈뉴스1〉, 〈대전 투데이 대전〉, 〈뉴스1코리아1〉 06월12일
〈MBS 대전〉, 〈충청투데이〉 06월 13일

연수과목(교수요목)	내 용	시수	수업방법		
			강의	참여	실습
진로코칭의 이해와 진로동기부여 및 성격에 따른 진로 설계	• 진로교육의 패러다임과 진로코칭의 내용 • 진로동기부여와 강령코칭 실습 • 성격유형의 이해와 진로설계	5	0	0	0
직업흥미경사의 활용과 다중지능 진로탐색의 실제	• 직업흥미경사와 해석 실습 • 직업흥미 활용 수업 실습 • 다중지능의 이해와 활용	5	0	0	0
직업세계의 이해와 직업탐색 활용 수업 실습	• 직업세계의 변화와 다양성 • 직업정보 활용하기 • 직업탐색 수업 실습	5	0	0	0
미래직업세계 탐색과 직업기초관 탐색	• 미래직업세계의 이해와 전망 • 미래직업 예측과 탐색 실습 • 직업기초관 탐색	5	0	0	0
진로의사결정과 꿈찾기	• 진로의사결정 이해와 훈련 • 나의 드림리스트와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 • 성장한 꿈의 현장 표현하기	5	0	0	0
커리어로드맵과 창직 진로코칭 프로그램 설계	• 커리어로드맵 작성 • 창직 프로그램 활용하기 • 진로코칭 프로그램 설계와 발표	5	0	0	0

(문의전화 :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042-629-6918)

우송정보대학, (주)탑텍으로부터 기탁장학금 수여식 진행

- 매년 500만원씩 지급하고 산학관계 발전 약속 -

〈MBS 대전〉,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중도일보〉, 〈디트뉴스24〉 04월28일
〈금강일보〉,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04월30일
〈대전 투데이〉 05월 01일



우송정보대학, “K-Move스쿨” 약정 체결식

- 기계, 자동차부품, 설계설비분야 일본취업 연수과정-

〈금강일보〉, 〈대전 투데이〉 06월 22일



우송정보대학, LINC+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디트뉴스〉, 〈mbs〉, 〈대전투데이〉, 〈뉴스1〉 09월 26일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트로피가 온다〉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초청 무대

〈대전 투데이 대전〉, 〈충청투데이〉 05월09일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학부 2017 대한민국 국제 요리 & 제과 경연대회 수상

〈MBS 대전〉, 〈대전 투데이 대전〉,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 〈중도일보〉, 〈대전일보〉 05월23일



국내외우수기업들과의 취업약정프로그램으로 가장 빨리 **[명장]**을 키우는 대학

신입생이
되면

신입사원이
된다



Sol
International
School

- 글로벌명품조리과

해외 현장실습(인턴십)기관 : 신라호텔(중국),
캠펜스키호텔(독일), 그로스버너(두바이) 등

- 글로벌호텔외식과

호주 ICHM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호주 학사학위 취득

- 글로벌제과제빵학부

프랑스 INBP 및 폴보퀴즈와의 단기
교육프로그램 연계 및 국제자격증 취득

- 글로벌실용음악과

일본 쇼비대학과의 복수학위(2+2) 운영

WSU 우송정보대학
WOOSONG COLLEGE